

지난 독일 역사가 제시하는 기회와 도전

—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다 —



독일 나치정부 시절, 우리 자매회의 설립자이신 마더 바실레아 슐링크는 전국을 다니며 성경공부 모임들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성경공부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당시 이와 같은 주제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다. 그러나 마더 바실레아 슐링크의 강한 신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였기에 유대인을 향한 차별에 분명한 자세를 취하였다. 하나님은 오늘날 어두움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신다.

나치 시대 이래 거의 90년이 넘어가고 있는 오늘일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려면 또 다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어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는 갈수록 위협을 받고 있으며 국제적 태도도 이스라엘을 향해 점점 더 적대적으로 나가고 있다. 이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는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소가 "이스라엘 - 예루살렘" 이라고 스가랴 14장에 지리적으로 나와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스가랴 14:4) 주님이 직접 영원히 거하실 곳으로 정하신 곳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 이면에 들어있는 최종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최후 승리하실 것은 확실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 영광된 승리의 최종 결말에 이르기 전, 먼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길 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있는 가장 영광된 목표에 이르는 쉬운 길은 없다.

1944년 9월 11일 연합군의 공습으로 독일 '다름슈타트'시가 완전히 파괴되어 화염과 파괴, 죽음의 한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를 낳으셨다. 하나님은 영광과 육이 모두 폐허가 된 곳에서 우리를 일으키셨다. 자복, 회개, 용서와 화목, 그리고 기도와 경배가 이런 잿더미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이것들은 우리 공동체의 영적 기초가 되었다.

오늘을 준비하면서 제 2차 세계대전이 한국을 분단으로 이끈 것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북한에는 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으로 가득하다. 오직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설명해 주실 것 이며 북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사랑을 부으시며 눈물 한 방울 까지도 직접 닦아 주실 것이다.

나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태어났는데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러시아 국경에서 돌아가셨다. 독일민족의 한 사람으로 나는 우리 나라의 죄악, 오래도록 저질러온 만행의 깊이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내 나라의 역사는 나 개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졌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한 내 나라 독일 역사의 비극을 직시해야 한다는 깊은 열망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한국도 이스라엘과 관련 지을 때 한국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기회

하나님은 폐허를 이용하신다는 것을 독일은 경험했다. 하나님은 잿더미를 가지고 일하신다. 하나님은 폐허와 잿더미 속에서 새것을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묘사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잿더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찬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8~29)

하나님의 목적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 이들은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위험이 없으며 '나'라는 사람이 과거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었는지를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이 범한 끔찍한 역사는 우리를 교만해지지 않고 낮아지도록 만든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덮어버릴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긍휼과 용서를 부르짖어야 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눅 7:47)

우리의 과거의 역사로 인해 주님께서는 우리 독일인들에게 많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은 바꾸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가르쳐 준다. 이제 우리 차례이다.

독일 역사가 주는 도전

전쟁 이후 내가 성장하는 동안 내 안에 반복해서 일어나는 지울 수 없는 질문이 있었다. 말하자면 국민 거의 전부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되는 이 나라에 어떻게 유대인 대학살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충분히 교육받은 지성인들로 자라난 국민 대다수가 또 더군다나 교회조차 어떻게 이러한 범죄를 향해 지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히틀러는 자기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과 달리 무식하고 처음부터 타고난 거짓말장이였다. 이러한 모순은 지적인 수준으로 이해될 수 없고 영적인 차원으로 볼 때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먼저 유대민족 대학살이 역사 속에서 아주 오랜 기간을 두고 준비되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회 역사를 아주 초기때부터 들여다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일부분이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대교회 때 이미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는데 이 분열은 후에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한 말씀이 있다. 그때 공의회 주제는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유대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그들을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길고도 어려운 토론 끝에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도 그들을 자기들의 유대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렇게 동의했던 것은 역으로 유대인 성도들에게 압박을 가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부탁 하였지만 그와 달리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려,

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그 이후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 차별과 핍박이 가해졌으며 유대인을 향한 우리의 처신은 말 그대로 참혹이었고 구원의 표시인 십자가는 유대민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칼이 되었다.

이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의 성경 번역을 통해 새로운 장이 열리면서 성경 속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었고 나아가 오늘날까지 많은 평신도들도 성경을 직접 소유하고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또 활판 인쇄술의 발명으로 복음은 그 이전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파되었다. 내 나라에 이런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한다. 그러나 이렇듯 하나님은 마틴루터를 통해 성경진리의 보화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감동을 주셨었지만 루터 자신은 유대민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특히 그의 말년에는 저술과 설교를 통하여 더욱 더 강력한 반유대주의를 표명했다. 그리하여 루터교 뿐만 아니라 주요 교단들은 루터의 '소경된 곳'을 그대로 상속받게 되었고 나아가 '대체신학'이 들어서며 이 사상은 오늘날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다.

대체신학에서 교회는 스스로를 '새 이스라엘'로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며 구세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박은 책임은 유대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새 언약의 특권이 유대인들 대신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동시에, 유대인에게는 오직 저주만이 남겨졌다고 생각한다.

로마서 9장-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감람나무 비유를 들어 이스라엘에 관하여 설명한다. 그의 예언적 경고는 바로 오늘날 우리 눈 앞에 성취되어 나타나고 있다. 바울 사도가 우리를 이렇게 책망한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로마서 11:18, 20-21)

교회가 모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적 뿌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스라엘과의 영원한 언약을 부정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새로운 실수들이 더해지고, 보아야 할 눈은 더 심각하게 가리워질 것이다. 이 점에서 독일이야말로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실례, 산 증거이다. 소위 종교개혁의 나라가 유대인 대학살의 나라로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 눈 한 쪽이 멀게 되면 또 다른 쪽까지 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독일대학 안에서 자라났고 융성하게 되었다. 자유주의 신학은 독일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이 사단의 독과 같은 가르침은⁴

아주 최근에 복음이 막 들어간 나라들에게까지 미치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빼앗아 내고 있다. 이런 신학이 한국 교회안에도 영향을 끼친 일에 여러분의 용서를 구한다.

오늘날 우리 서구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곧 로마서 11장의 감람 나무에서 찍어 내던져지는 가지가 될 수 있을 위치에 있다. 우리 교회가 유대 뿌리와 더 이상 연결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곧 재앙이 된다. 전 세계에 놀랍고 풍성하게 자라난 우리의 가지들을 자랑한다 할 지라도 다가오는 폭풍우 속에서는 아무 가지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는 기독교만이 보전될 것이다.

거짓에 대항하라

유대민족 대학살 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최고의 교회 가르침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잃고 소경되지 않도록 막아주지 못하였으며 못한다는 것이다.

유대민족 대학살은 바로 우리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도 완전히 속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래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질문하였을 때 어떤 계획표나 일정표도 주지 않으셨으며 그 대신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4)

예수님은 제자들이 쉽게 속임당할 수 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에 걱정하셨다.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한다. 독일이 범한 역사는 우리 한 사람 한사람과 각 모든 나라에 경종을 울려준다. 주님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 거짓과 미혹에 맞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하신다. 깨어 기도하며 진리에 눈이 떠 있어야 하겠다.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며 주님은 진리의 왕이시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나 개인 삶의 모습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나 자신의 생활에 적용되지 않은 채 가지고 있는 지식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 없이 만든다. 그들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한치 틀림 없이 알고 있었음에도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바로 소경을 이끄는 소경 인도자들이었다.

2차대전의 큰 충격이 있는 후 우리 자매회의 선배 자매들은 우리 영적 어머니셨던 5

마더 바실레아에게 물었다. "만약 새로운 히틀러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정체를 어떻게 일찌감치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마더 바실레아는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했었던지 짚어주셨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9-10)

우리의 삶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야 한다. 먼저 내 눈을 열어 내 자신의 삶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과 미혹, 거짓 속임수를 향해 눈이 열려 알 수 있게 된다. 주님은 크게 속이는 자인 사단이 우리 삶에 얼마나 쉽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지 잘 아신다. 그래서 끔찍한 시험의 시간을 단축하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받은 우리들이 구원 받을 수 있게 하셨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22)

우리는 모두 본래 소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의 이 가장 큰 문제점이 요한복음 9장에 묘사되어 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41)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흐름의 말씀이 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 3:17)

성도의 무기 - 빛

우리 시대의 칠흑같은 어두움은 우리를 극도로 눈 멀게 만들고 있다.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변화가 절실한 때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60:1~2)

우리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 말씀하신다. 어둠이 땅을 덮고 있으며 우리는 매일 매일 더 짙어져 가는 어둠을 이미 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되라!"고 긴급히 요구하신다. 빛만이 어두움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또한 '한밤중'이 될 것을 우리는 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신다:

이들 모두는 다 개인적으로 신랑을 알고 있었다.
이들 모두가 다 같은 초대를 받았었다.
이들 모두는 다 혼인잔치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 모두가 다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깨어나게 되었을 때 이들 중 절반은 충격에 빠진다. 절반은 빛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절반은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눈이 멀어 있었다 -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 자기 자신을 두고 충분한 빛을 가지고 있다고 - 확신하고 있음으로서 스스로 속고 있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자. 진실로 간구하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숨어있는 동기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마음 안에 여전히 들어있는 것들: 오만, 자만심, 한 구석 최고를 노리거나 다투고 시기하는 것, 주목받고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들까지도 성령님은 빛 가운데로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독일의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바 우리를 향한 첫번째 도전이요 경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소경으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바로 이것이다.

두번째 도전

모든 박해와 범죄, 잔혹한 행위들은 시내산에서 주신 첫째되는 계명을 거스리며 일어난 것들이었다: 나는 ...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2-3)

주님의 율법은 거룩하다. 그러기에 우리가 범한 죄악들이 바로 기독교 국가로 불리우는 내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더 경악할 일이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았어야 했다. 그 누구보다도 교회는 더욱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공개적으로 드러내 이에 따르는 모든 심각한 결과들을 기꺼이 짊어지며 규탄해야 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실패했으며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알면서도 정반대의 죄를

범하고 말았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12) –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치정권 12년간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수백만 번 한낱 한 인간에게 돌렸다.

오늘 북한을 보면 옛날 나치정권 하의 독일이 그대로 강하게 연상시키는 까닭에 내 마음은 고통으로 가득차게 된다. 물론 우리 독일이 소위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첫 계명을 무시하고 거스린 죄로 인해 수백만의 죽음을 가져온 국제적 참사, 제2차 세계 대전을 불러 일으킨 것을 제외하고 말이다.

독일 그리고 전 세계가 유대인 대학살이 낳은 비극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래서 추모기념관, 기념비, 추모식, 책과 영화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일이 다시 없기를..." 하고 외치던 잘 알려져 있는 이 문구가 진실이 되어지도록 말하고 행해진 것들이었다. 이런 큰 노력들이 목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에서 배우라"는 모토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모든 선한 의도에서의 노력들도 실패할 것이며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최고의 학교 교육도 충분하지 않으며 반유대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운동들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대인에 대한 증오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유대인을 향한 증오와 하나님을 향한 증오, 이 두가지 증오는 같은 근원에서 나오는데 곧 사단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최후 승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막아내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오직 영적 무기로만 이길 수 있게 된다.

이스라엘로부터 배우라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통과해야 하는 길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상 섬기는 일이라고 하신다. 이 사실은 구약의 거의 모든 장에서 읽혀진다. 이스라엘은 그 어떤 다른 신이나 존재가 아니라 오직 참되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하여 이방나라들에서 구별되어 빛을 발하는 나라로 부름받았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방인 성도들을 꾸짖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나와 있으라

우상숭배는 항상 영적 침체로 이어져가고 결국 온 생애 전부로 걸치는 재앙으로 끝난다. 한 예를 들어 보자. 솔로몬 왕은 왕국을 견고히 하였고 40년 동안 왕국의 평화는 지속되었다. 말년에 있는 솔로몬 왕의 치리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상당한 부를 얻었다. 그러나 그때 위기가 시작되었고 솔로몬은 정도를 벗어나게 된다. 타락하게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리는 말이 아닌가? 많은 축복은 우리를 유혹으로 이끈다.

열왕기상 11장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이 유다지파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분열된 왕국의 참상을 보여준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찌기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열왕기상 11:9-10)

솔로몬왕의 뒤를 이은 여로보암은 심지어 베엘과 단에 두 금송아지 상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

우상은 주님의 대로에서 제거되어야 할 큰 돌이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 아주 깊고 큰 슬픔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진노를 불러 일으킨다. 여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날의 독일, 이스라엘, 또 한국,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에서 행해지는 우상숭배 때문에 깊이 상처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알아내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을 고백하고 드러내 던져버려야 한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철저히 근본적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우상을 거절해야 한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게 된다.

도대체 무엇이 우상인가 - 나의 우상은 과연 어떤 것인가 물어보자. 우상이란 내 마음의 중심을 흠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이 주어져 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7-40 절에서 강조하셨다.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큰 고통이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간음하는 마음이었다.

예레미야 2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기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2 절)

나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신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1 절) –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32 절)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은 두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서는 순전한 마음, 신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북한은 우리에게 두가지 유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그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상할 만한 모든 최악의 우상숭배요, 또 다른 하나는 그와 동시 지하성도들의 삶으로서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 생명과 바꾸며 온전히 헌신하는 그들의 생활 태도이다. 이들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그대로를 따르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따르도록 여러 차례 분명하고 과격한 말들로 요청하시건만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에 살면서도 왜 이런 말씀들을 완전히 넘겨듣는 것일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37-39)

이 말들은 우리 귀에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그 안에는 매우 귀한 복음이 들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어떤 가치의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게 될 지 알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획득해 주신 영원한 보화에 대해 소경이 되어 있을 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할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훨씬 넘어서 있는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지불할 필요 없도록 주님께서서는 자신의¹⁰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값을 치루어 주셨다. 우리 쪽에서 할 일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으로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위해 자신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주님께 영광을

이 긴장과 위기의 시기에 우리 모두가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한밤중에도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에 대해 들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온갖 충격스런 무시무시한 소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듣기 원하시는 지에 귀기울여야 한다. 여기 구약과 신약에서의 각각의 구절 말씀을 읽어보자. 둘 다 비슷하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고를 표현한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예레미야 13:16-17)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4:7)

이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너무 부족한 상태에 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르게 서 있는, 나눠지 않은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 오늘날 셀 수 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 뿐만으로가 아니다. 최근에는 우리의 눈에 우리 세계 경제의 금송아지 우상이었던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도 있었다. 우리는 이런 간음의 세대에 속한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우리의 우상들을 높이며 갈라진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한다.

북한의 가장 큰 강력한 진은 우상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삶 속에 어떤 우상이 있어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지 스스로 묻도록 도전받는다. 많은 것들을 들 수 있겠으나 다만 소위 관찮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우상들'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의 취미, 스포츠, 건강, 교육, 컴퓨터와 인터넷, 우리의 사랑하는 벗들과 가족, 우리의 교회와 회중들, 나아가 주님을 위한 사역들이다. 그렇다, 우리 마음이 빼앗길 수 있게 되면 좋은 것들까지도 아주 쉽게..

'가장 좋은 것'을 대적하는 원수, 우상이 될 수 있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보고자 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세상적인 생각들로 차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는 대신 우리 육체를 따르고 있다.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는 세상과 똑같다. 다른 사역자들과 경쟁하며 명성을 얻기위해 세상적 방법을 사용한다. 또 시기와 질투도 용납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위한 영향력 행사 위치를 조성하거나, 마치 우리의 성도나 회중 멤버들의 숫자와 크기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기준이 되는 것처럼 계산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다윗 왕이 백성들의 수를 계수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진노로 타오르셨던지 수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었다.

예수님께서 권고하신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5:44)

'우리 자신의 위대성'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찢러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며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 속에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에서 극과 극의 대조를 본다: 한 면으로는 극악한 우상숭배가 행해짐으로서 우리 주님께 모욕과 극도의 고통을 자아내는 한편, 다른 면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나뉘지 않은 마음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며 주님의 영광된 이름을 강력하게 높여드린다.

끝을 맺으며 당부한다: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라. 우상을 던져 버리라. 그때 주님께서서는 북한에 문을 여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대로를 수축할 것이다. 그러면 교회 역사에 있는 어두운 시대는 끝이 나게 되며 우리는 다가오는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마지막 구원 시대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며 십자가는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원하는 영광된 표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존귀와 영광은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돌아갈 것이다. 아멘.

2010. 10. 4.

'한국-이스라엘 성회' 중 요엘라 크뤼거 자매(Sister Joela Krueger)의 연설문

©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 • 독일 다름슈타트